

CJ Feed

CJ사료 안전성 중국서도 OK… ISO22000, HACCP 동시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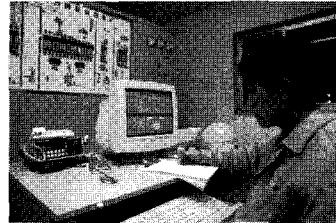
- 중국 내 8개 생산기지 100% 인증완료,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서도 드문 사례
- 연간 1억 3천 만 톤 거대 중국사료시장 공략 기반 마련

CJ제일제당이 중국 내 사료생산기지에서 ISO22000, HACCP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지역은 성도, 심양, 청도, 정주, 난경, 천진, 창사, 하얼빈의 8곳으로 CJ제일제당의 중국 내 사료생산 기지 전부에 해당한다. 최근 중국 식품관련 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사료생산현장에서 ISO와 HACCP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ISO와 HACCP인증을 동시에 받아낸 것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

식품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CJ제일제당은 사료부문에서도 국내 3개 지역(인천, 군산, 원주) 해외 16개 지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면서 연간 1조3천 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대표사료기업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포화상태에 달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사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다. 최근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고, 사육방식의 변화로 사료소비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돼지의 사육두수 만해도 2008년 기준 5억 3천만 두에 달하면서 단일국가 중 최고치의 두수를 나타내고 있고, 사료사업 규모 면에서도 2009년 현재 1억 3천

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 시장이 연간 10% 가깝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중국 사료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까지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올림픽을 치르고 멜라민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내 식품관련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현지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ISO, HACCP 등 안전성, 품질 관련 인증은 이후 공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의 경우에도 이번 동시 인증 이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중국 사료사업 담당 강세원 상무는 “사료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ISO/HACCP 인증을 획득 함으로써 중국 축산고객의 수익성 향상은 물론 중국 축산 식품의 안정성 제고에도 한층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금껏 공략하지 못했던 대규모 기업농장은 물론 유가공 업체등과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격적인 사업 확대 계획을 시사했다.

CJ제일제당의 중국 내 사료생산규모는 2003년 진출 첫해 6만 톤에서 2009년 현재 48만 톤까지 급신장을 거듭했다.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은 향후 CJ그룹의 중국시장 확대전략에 따라 2013년 까지 중국 내에서만 생산량을 100만 톤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삼양사 사료

한우 대학 통해 “고급육 프로그램 완전 마스터”

삼양사 “고급육 생산 사양관리 핵심노하우 전파” 삼양사 사료(BU장 강신우)는 지난 10월 21일에 김천 농업 기술센터에서 제 2기 김천 한우대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수료식에는 한우인 53여명이 수료하고 보다 한 단계 높은 한우 고급육 만들기 교육에 만족해 했다. 제 2기 김천한우대학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축우PM인 박웅렬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최근 한우시세가 높게 형성된 시장상황에서 농

가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
양한 사양관
리 주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농가에게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에 삼양사료 영남판매본부(성거섭 본부장)에서는 내년에도 제3기 김천 한우대학을 개설하여 고급육생산을 위한 모든 사양기술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성사료

우성사료 “더한우마루” 실증소개회의 실시

57농가 1,168두 출하 결과 평균 1+ 이상 62%, 도체중 424kg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인 더(The)한우마루 출시 2년을 맞아 출하 성적 실증소개회의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10월 21일 중평, 괴산, 청주를 시작으로 23일 창녕, 밀양, 26일 부안, 김제, 정읍에서 한우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성적 소개를 비롯해 일본의 고급육 전문가인 히다리하시사 박사를 초청하여 일본의 비육우시장 사례와 고급육 만들기 노하우에 대한 특별강연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더한우마루를 먹고 출하된 전국의 57농가 1,168두의 출하결과 1등급 이상 92%, 1+등급 이상 62%, 저육중량 424kg으로 같은 기간 전국 거세 한우의 평균성적보다 1등급 이상 13%, 1+등급 이상 15%, 저육중량 12kg이 높았으며, 마리당 41만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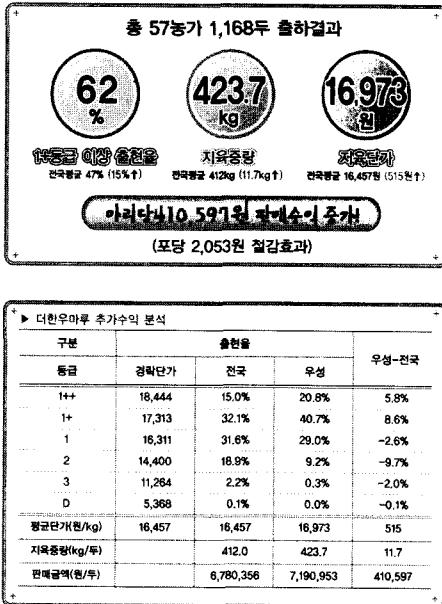


특히 최상위 1/3(19농가)의 평균 성적은 1+ 이상 70%, 1등급 이상 94%, 도체중 440kg에 등심단면적 94cm² 등지방두께 11.2mm로 일본의 화우와 필적할만한 높은 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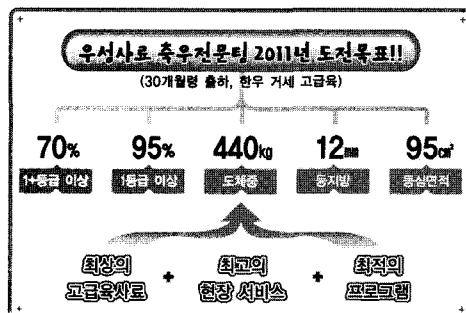
품질고수 원칙 지키며 사료가격 인하 강행

우성사료 축우PM 손근남 박사는 “비육우 생산원가는 지난 1년 사이에 120만원 이상 상승했으며,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축산물 소비시장이 냉각되어가는 시점에 최근 수입유통업체들은 미산 쇠

>> 업계소식 >>



▶ 57농가 기세한우 1,168두 출하					
기간 : 2009년 11월 ~ 2009년 12월					
경제 품목별 분석	전국평균	우성평균	상위1/3	하상위1/3	
1등급 등급	47%	62%	53%	62%	70%
1등급 이상	75%	92%	88%	90%	94%
도체중(kg)	412	424	405	423	440
등지방(g)	12.4	12.4	13.6	12.5	11.2
총상면적(m ²)	87.8	90	87	90	94



고기 판매에 안간힘을 쓸고 있어 한우산업은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우인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사료가격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산업의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내년은 UR, WTO,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

망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낭비요소를 없애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전체적으로는 한우산업의 시장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올 초부터 전 세계가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식량의 문제는 단순한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넘어섰으며, 국가안보와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주)카길 애그리퓨리나

퓨리나 브랜딩 파트너 우수 축산물 인정받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서 대관령한우, 물맑은 양평개군
한우 수상

2009년 10월 28일 – 퓨리나 사료(대표: 이보균, www.purinafeed.co.kr)는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 내에서 “2009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퓨리나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가고 있는 ‘대관령한우’와 ‘물맑은 양평개군한우’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식품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총 16개 브랜드 단체가 수상하였고 그 중에 퓨리나 브랜딩 파트너인 ‘대관령 한우’는 이날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물맑은 양평개군 한우’는 고품질상을 수상하였다.

퓨리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 브랜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면, 특히 한우 부문에서 그 파트너쉽을 인정받고 있다.

퓨리나 11지구, 2009년 강화지역 성적발표회 열어 고급육 출하 성적 비교로 한우 수익성 극대화 방안 소개

2009년 11월
17일 - 퓨리나
사료(대표: 이
보균, www.
purinafeed.



co.kr) 11지구(영업이사: 박종은)은 강화 명진부페에서 “성공! 한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주제로 ‘2009년 강화지역 성적발표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비육 사양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퓨리나 한우사랑명작과 비한우티엠알에 대한 강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1지구 박종은 영업이사는 “2009년이 한우사업의 희망이 열린 해였다면, 앞으로 한우사업에 있어 최고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고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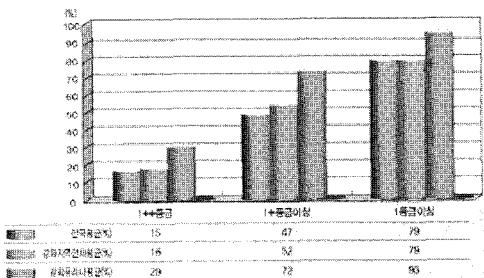
허재상 축우 판매부장은 “한우 사업을 통해 최고의 성공을 이루려면, 보다 많은 1천만원 명품한우 생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2009년 퓨리나 강화지역 출하성적을 통해 명품 한우 생산 및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최근 높은 한우 시세가 형성된 시장에서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퓨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퓨리나 고객과 전체 강화지역과의 성적 비교를 통해 수익성 차이를 보여줘서 참석한 농가

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퓨리나 고객은 강화 고급육 생산 선도자라는 실증 보여줘

2009년 강화지역 출하성적은 출하두수 282두 1++ 등급 29%, 1+등급 이상 72%, 1등급 이상 93%, 도체 중 439kg으로 전년대비 빠른 성적변화를 보이며 전국평균시세 보다 1,060원/kg이 더 높은 경락단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강화지역 퓨리나 고객은 2009년 퓨리나 농가를 제외한 강화지역 전체 성적(1++등급 14%, 1+등급 이상 49%, 1등급 이상 77%)과 비교해보면, 각 1++ 15%, 1+등급 이상 23%, 1등급 이상 16%의 차이를 보이며 강화지역 내 고급육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참조)

▶ 강화전체 등급별 평균 vs 강화퓨리나 평균 (2009년)



이번 성적발표회는 강화에서 2008년 6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성적발표회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퓨리나의 고객에 대한 확신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 귀중한 자리였다. 결론적으로 한우 고급육농장이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더 높게’(1++30% 이상, 1+70% 이상), ‘더 크게’(도체중 450kg 이상), ‘더 넓게’(등심단면적 95cm² 이상)라는 목표로 1천만원 명품한우생산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한우사업의 새 시대를 열도록 모두 함께 더욱 노력하자고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